

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

□ 보도내용

- 한겨레는 10월 13일 「유명인 사칭 허위광고에도 메타 “규정위반 아냐” 뒷집」 제하의 기사를 통해
-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들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,
- 국내·외 플랫폼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기관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보도

□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현재,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중임
-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 타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심의, 시정요구(차단, 삭제) 등의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손건우 (02-2110-1538)